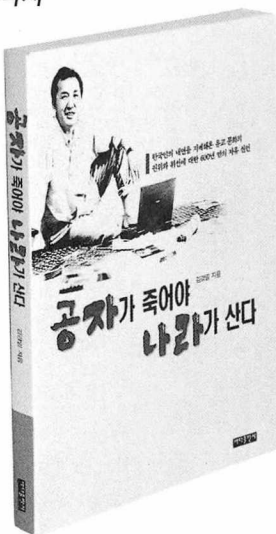


“공자가 꼭 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함”

김경일 교수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읽고

홍원식 · 계명대 철학과 교수

사실 나는 원고 청탁을 받고 무척 망설였다. 이미 독자들에게 ‘인정’ 받아 그야말로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라 자칫하면 그의 유명세를 시샘하거나 편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부담은 되지만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약간의 책임감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계속 찻찻한 생각이 지워지질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유명세와 판매량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자조와 결국 그가 격렬하게 비판(비난?)하고 있는 ‘유교근본주의자’ 속으로 나도 내몰리고 말 것이라는 무력감과 같은 것이다.



극단적 문화일원론의 입장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지은이의 동양 3국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폭넓은 관심에 놀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은이의 문제의식과 현실비판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이 이토록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책제목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편 이 격정적 책제목이 도리어 지은이의 중요한 문제 제기와 차분한 논의를 가리고 있다는 아쉬운 생각도 든다.

지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고 있다. “1910년 한일합방, 1950년 6·25, 1997년 IMF,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세 번을 죽다 살아났다.” 이어 그는 “50년이 멀다 하고 되풀이되는 이 역사적 사건들이 그저 우연한 것일까?”라고 묻는다. 그는 “이런 위기의 연속에는 우리들 내부에 숨어 있는 어떤 필연의 이유가 있다”면서 ‘유교라는 곰팡이’를 지목한다. 마침내 그는 이러한 ‘천지개벽’과도 같은 위기가 바로 유교 곰팡이를 키우고 퍼뜨려온 ‘유교근본주의자’들이 불러온 것이라면서 그들을 거칠게 비판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극단적 문화일원론의 입장에서 있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현대사의 이 굽적한 3대 사건들을 동질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그것도 ‘문화’라는 요소만으로 읽어낸다는 것은 눈 가진 자가 할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국내외적,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인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이다. 정말 그의 말대로 한일합방은 ‘무기력한 정부와 위선적인 지식인’들이 부른 것이고, 6·25는 ‘우리 문화 속의 분열본질’이 부른 것이며, IMF는 ‘자기 기만과 허세’가 부른 것일까? 다른 요인, 더 근본적인 요인들은 없는 것일까?

그가 제기한 요인들이 모두 유교 곰팡이와 관계됐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금 한국사회를 유교라는 하나의 코드만으로 읽어내는 담대함, 거기다가 과거와 현대의 모든 한국 병폐를 유교에만 짐 지우는 어처구니없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런 논법은 ‘지금 공자가 살아있거나 한가’ 라든가, 만약 ‘공자가 죽고 없었다면 한일합방도 6·25도 IMF도 없었겠네’라는 물음 같지 않은 물음을 불러들일 것이다. ‘악의’(학술적 태도에서는 선의도 악의도 바람직하지

않다)에 찬 유교-문화본질론자, 유교-문화일원론자의 모습만 떠오를 뿐이다.

이어 지은이는 유교 자체로 논의를 옮겨간다. 차분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는 책 곳곳에서 자신이 한국의 갑골학 박사 1호라는 것을 내세우며 자신의 주장에 권위를 실으려 들지만, 사실 갑골학이 유교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유교는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일관한 거짓의 학이라는 것이다. 곧 그는 유교의 기원을 ‘거짓되고 야심에 찬’ 은나라의 조갑이라는 임금에게서 찾은 뒤, 뒷날 공자는 조갑의 야심도 읽어내지 못한 채 멍청하게도 곧이곧대로 도덕만 주절했고, 주자는 그러한 공자를 이어받아 ‘위대한 사기극’을 연출했으며, 조선의 정도전과 유학자들은 그 마름 역할을 충실히 했고, 그래서 한일합방이 왔고 6·25도, IMF도 왔다고 주장한다.

최소한의 학자적 성실함 가지길

사실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비판해 들어가야 할지 도무지 중잡을 수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여기에서 최소한의 학자적 자세와 성실함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 좋겠다. 덧붙여 공자를 비판하려고든 조기빈(趙紀彬)의 《반(反)논어》를, 그리고 비록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겠지만 독자들의

균형잡힌 이해를 위해 크릴의 《공자—인간과 신화》를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

지은이는 지금의 우리 모습을 비판하면서 유교근본주의자들을 ‘아, 아, 대한민국론자’라 비아냥대고 ‘맹목적 문화 소비자들’과 한데 묶어 버린다. 김치 한 조각에 우리 맛을 느끼는 것도, 개량한복을 입고서 약간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같이 한글을 쓰는 까닭에 하나라고 느끼는 것도 그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유교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왜 비아냥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를 일이다.

그가 한두 번 문화적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일월’의 자격은 갖지 못한 채 ‘보편’ 속에서 미아가 되고 말 것이다. 그가 이렇듯 보편주의자요 세계주의자기 때문에 책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군데군데 ‘한일합방’이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없이 쓴 것일까?

나는 다분히 주술적 냄새가 나는 2000이라는 숫자 앞에서 생각 없는 독자와 책임 없는 출판과 언론, 종파적 이해관계 뒤에 숨어 채계를 부르는 이들, 그리고 뒷집지고 내몰라라하는 학자들이 연출해낸 한바탕 국판을 보는 것 같다.

내 속생각을 밝히면서 글을 맺는다. ‘그래, 맞아. 공자도 죽을 만하면 죽어야 돼. 그리고 죽이려면 제대로 죽어야 돼. 그렇지만 나는 애석하게도 이 책 속에서 공자를 꼭 죽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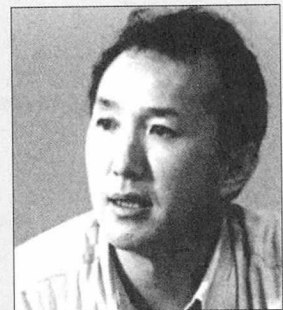
저자의 입장

“우리 사회 금기 깨고 싶어”

김경일 · 상명대 중문과 교수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우리 사회의 금기와 성역을 깨고 싶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폐해들은 공자의 유교문화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유교의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유교문화의 폐해를 알리고 싶었다. 유교문화의 실체를 토론의 의제로 올린 것에 대해 만족한다.

이 책이 나온 이후 독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현상들에 대해 답답함과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 책이 그 실체를 잘 짚어줬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도덕을 땅에 떨어뜨리고 식민사관에 젖



어 있다는 요지로 비난한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나는 이런 분들을 설득할 생각이 없다.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600년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한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면 될 것이다.

다만 이 책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에서 유교담론에 대한 토론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길 기대한다. ❖